

만전춘별사

작자 미상 · 2027 수능특강 문학 2부 2강 p.48

02 전체 흐름

임과의 사랑을 노래한 고려가요이다. 화자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임과 함께하고 싶어 하며, 임이 없는 밤에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드러낸다. 아름다운 봄 풍경과 이상적 조건을 제시하면서 임과의 사랑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갈래·성격 고려가요 · 연정가 · 애상적 · 기원적

핵심 정서 임과 함께하고 싶은 사랑의 의지,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영원한 사랑의 기원

원문 인용 얼음 위에 댓잎 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 정든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03 시상 전개

의지

열악한 상황이라도 임과 함께하고 싶다는 사랑의 의지를 드러낸다.

부재

임이 없는 밤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설의적 표현으로 부각한다.

원망

관계가 어긋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망, 기다림의 정서를 보인다.

기원

이상적 조건을 제시하며 임과 함께하길 바라고, 영원한 사랑을 기원한다.

DECODE

<보기> 먼저 해독

핵심 관점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마음, 임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 시어의 대비와 반복이 만드는 정서를 함께 본다.

<보기> 키워드

영원한 사랑

임의 부재

시어 대비

반복

설의적 표현

고려가요

05 출제 포인트

주제 유형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기원한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중심이다.

정서 흐름 사랑의 의지 → 임의 부재와 외로움 → 관계 어긋남에 대한 원망 → 기다림과 기원.

시어 의미 '얼음 위에 댓잎 자리'는 열악한 상황, '정든 오늘 밤'은 임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시어 대비 '경경 고침상'은 임의 부재, '도화·소춘풍'은 아름다운 봄 풍경을 드러낸다.

표현 기법 동일 시행·시구의 반복, 설의적 표현, 대비가 그리움과 외로움을 강화한다.

06 작품별 핵심 체크 (고전시가)

주제 유형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고려가요이다.

정서 흐름

사랑의 의지, 외로움, 원망, 기다림, 영원한 사랑의 기원으로 전개된다.

시어 의미

열악한 공간과 아름다운 봄 풍경의 대비를 구분한다.

표현 기법

반복, 대비, 설의적 표현이 임을 향한 그리움을 강화한다.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이정보 · 2027 수능특강 문학 2부 5강 p.55

02 전체 흐름

화자는 임을 오리나무나 나비에, 자신을 칠펙쿨이나 납거미에 빗대어 임과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드러낸다. 동짓달의 바람, 비, 눈, 서리 같은 고난이 닥쳐도 임과 화자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갈래·성격 고전시가 · 연정적 · 비유적 · 적극적

핵심 정서 임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의지, 사랑 지속에 대한 확신

핵심 구조 자연물은 자연 예찬이 아니라 임과 화자의 관계를 비유하는 소재이다.

03 시상 전개

임

‘오리나무’와 ‘나비’는 임을 가리키는 자연물 비유이다.

화자

‘칠펙쿨’과 ‘납거미’는 임에게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화자를 뜻한다.

고난

‘동 선달 바람비 눈서리’는 사랑을 가로막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확신

설의적 표현으로 고난 속에서도 임과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DECODE

<보기> 먼저 해독

핵심 관점

임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 임과 화자를 나타내는 비유쌍, 고난 속에서도 지속되는 사랑을 함께 본다.

<보기> 키워드

사랑 지속

비유법

음성상징어

반복

설의적 표현

사랑의 고난

05 출제 포인트

주제 유형 임과의 사랑을 오래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중심이다.

정서·태도 임과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와 확신,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시어 의미 ‘오리나무’와 ‘나비’는 임, ‘칠펙쿨’과 ‘납거미’는 화자를 뜻한다.

고난 의미 ‘동 선달 바람비 눈서리’는 임과 화자의 사랑을 가로막는 고난이다.

오답 차단 자연물은 자연 예찬이 아니라 사랑의 지속 소망을 드러내는 비유 소재이다.

06 작품별 핵심 체크 (고전시가)

주제 유형

임과의 사랑을 오래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중심이다.

비유쌍

오리나무·나비는 임, 칠펙쿨·납거미는 화자에 대응한다.

고난 의미

동짓달의 바람비 눈서리는 사랑을 가로막는 시련이다.

표현 기법

음성상징어 반복과 설의적 표현이 결연한 의지를 강화한다.

그 나무

김명인 · 2027 수능특강 문학 2부 현대시 09강 p.106

묶음 그 여름의 끝 / 그 나무

02 전체 흐름

「그 나무」는 벚꽃 가로를 따라가던 화자가 남들보다 늦게 꽃을 피우는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의 뒤처짐과 상처에 자신을 비추며 연민과 기원을 드러내는 현대시이다. 화려한 앞줄의 나무들과 달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는 늦된 나무는 결핍과 상처를 지닌 존재이다. 그러나 화자는 그 나무도 마침내 꽃볼과 푸른 잎을 지퍼 올릴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바란다.

갈래·성격 자유시 · 서정시 · 성찰적 · 상징적 · 기원적
핵심 정서 뒤처진 존재에 대한 연민과, 늦더라도 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조심스러운 희망

03 시상 전개

발견

화자는 벚꽃 가로에서 미처 꽃을 펼치지 못한 늦된 나무를 발견한다.

대비

화려한 앞줄의 나무와 시멘트 개울가 그늘 속 나무가 대비된다.

동일시

비틀린 뿌리와 늦은 개화는 결핍을 지닌 화자의 내면과 겹쳐진다.

기원

의문형 어조로 그 나무도 잎과 꽃을 지퍼 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06 표현 기법

대비 구조

다른 나무와 그 나무의 대비를 통해 소외된 존재에 대한 연민과 기대를 드러낸다.
주류의 존재는 **벚꽃, 앞줄 아름답드리, 여느 꽃나무, 불타는 소싯공양**으로 표현된다.

계절 변화

늦은 존재인 **그 나무는 늦된 그 나무, 꽃볼 성화, 병든 그 나무, 푸릇한 잎새, 가난한 소지**로 표현된다. 봄·여름·가을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결실을 얻으리라는 기대를 드러낸다.

DECODE

<보기> 먼저 해독

핵심 관점

의문문·설의문의 머뭇거리는 어조와 자연물과 시적 자아의 동일시가 핵심이다. 늦된 나무를 단순히 병든 나무가 아니라 뒤처진 존재에 대한 연민과 기원의 대상으로 읽어야 한다.

<보기> 키워드

의문형 어조

자연물 동일시

늦된 나무

대비

제의적 이미지

연민과 기원

05 출제 포인트

작가 김명인은 현실 비판적 시와 시적 대상에 대한 연민을 중심으로 한 시 세계를 지닌다.

정서·태도 화자는 늦고 뒤처진 존재를 비난하지 않고, 연민과 조심스러운 기대를 보인다.

대비 구조 앞줄 나무와 그늘 속 나무, 화려한 벚꽃과 비틀린 뿌리의 대비가 핵심이다.

상징 판단 꽃볼·성화·소지는 결핍의 개화를 성스러운 제의로 끌어올리는 이미지이다.

오답 차단 늦은 개화를 실패나 소멸로 단정하지 않고 가능성의 기원으로 읽는다.

07 작품별 핵심 체크 (현대시)

화자 태도

늦된 존재에 대한 연민과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원.

표현 기법

의문형 어조, 대비, 자연물과 자아의 동일시가 핵심이다.

상징

늦된 나무는 상처와 결핍을 지녔지만 피어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다.

비교 축

「그 여름의 끝」이 종결 선언이라면 이 작품은 머뭇거리는 기원이다.

멸치

김기택 · 2027 수능특강 문학 갈래 복합 10강 p.293

묶음멸치 / 버팀목에 대하여 / 뿌리가 꽃이다

02 전체 흐름

「멸치」는 식탁 위의 마른 멸치 한 마리를 끈질기게 응시하며, 죽고 굳은 사물 안에 남아 있는 살아 있던 시간과 바다의 기억을 길어 올리는 현대시이다. 식탁의 멸치는 딱딱하게 굳어 생명력을 잃은 듯 보이지만, 화자는 그 몸에 남은 바다의 무늬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떠올린다. 자연을 파괴하는 삶에 대한 반성과 상실된 생명력의 회복을 바라는 태도가 핵심이다.

갈래·성격 자유시 · 서정시 · 관찰적 · 사색적 · 이미지 대비
핵심 정서 자연을 파괴하는 삶에 대한 반성과 상실된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

03 시상 전개

응시

식탁 위의 마른 멸치라는 작고 평범한 사물을 정밀하게 바라본다.

역행

현재 반찬으로 올라온 멸치를 보고 과거 바다 속에서 살던 멸치를 회상한다.

대비

딱딱해진 멸치와 바다 속 부드러운 물결로 살아가던 멸치가 대비된다.

확인

다시 현재로 돌아와 식탁 위 멸치에 남은 바다 무늬에서 생명력을 확인한다.

06 표현 기법

대비

상설: 딱딱한 것들, 햇빛의 곳곳한 직선, 바람과 햇볕, 배다귀, 모래 더미, 건어물집, 푸석한 공기, 두껍고 뱃뱃한 공기, 고깃배, 그물.
생명: 물결, 파도, 해일, 바닷속, 무수한 갈래의 길, 부드러운 물결, 바다의 무늬, 지느러미, 작은 물결, 작은 무늬, 딱딱한 직선과 부드러운 물결의 대비가 생명력의 상실과 회복을 강조한다.

시공간의 역행

현재 식탁 → 과거 바다 → 현재 식탁으로 시간과 공간이 역행한다. 1행 현재, 2~12행 과거, 13~21행 현재. 현재의 반찬에서 과거 바닷속 멸치를 떠올리고, 다시 식탁 위 멸치에 남은 바다 무늬를 확인한다.

작가 경향

김기택은 현대 문명과 생명의 문제를 성찰한다. 산업화로 파괴된 자연에 주목하면서도 자연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다.

07 작품별 핵심 체크 (현대시)

화자 태도

자연 파괴를 반성하고 사라진 생명력의 회복을 소망한다.

시상 구조

현재 식탁에서 과거 바다로 역행한 뒤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표현 기법

딱딱한 직선과 부드러운 물결의 대비가 핵심이다.

비교 축

「버팀목」은 헌신, 「뿌리」는 통찰, 이 작품은 생명 회복이다.

DECODE

<보기> 먼저 해독

핵심 관점

김기택 시의 핵심은 현재의 마른 멸치에서 과거 바다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시선이다. 딱딱한 직선과 부드러운 물결의 대비,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역행 구조를 함께 읽어야 한다.

<보기> 키워드

시공간 역행

직선과 물결

생명력 회복

자연 파괴 반성

현재와 과거

문명 비판

05 출제 포인트

작가 김기택은 현대 문명과 생명의 문제를 성찰하며, 산업화로 파괴된 자연과 회복 가능성에 주목한다.

정서·태도 자연을 파괴하는 삶에 반성하며 상실된 생명력의 회복을 소망한다.

이미지 판단 딱딱한 것들과 부드러운 물결의 대비가 자연 생명력의 상실과 회복을 드러낸다.

표현 기법 현재 식탁에서 과거 바다로, 다시 현재 식탁으로 돌아오는 역행 구조가 핵심이다.

오답 차단 멸치를 단순한 반찬이나 빈곤의 상징으로 보지 말고 문명과 생명의 문제로 읽는다.

오월 소식

정지용 · 2027 수능특강 문학 2부 현대시 02강 p.84

묶음 오월 소식 / 와사등

02 전체 흐름

『오월 소식』은 멀리 떠난 이에게서 온 편지를 매개로, 첫여름의 자연과 그리움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포착한 산문시이다. 화자는 오동꽃, 바다, 바람, 오르간 소리 같은 이미지를 이어 놓으며 직접적인 감정 토로 없이 기다림과 그리움을 환기한다. 자연의 빛과 소리, 촉감이 서로 건너가며 하나의 서정적 분위기를 만든다는 점이 핵심이다.

갈래·성격 산문시 · 서정시 · 감각적 · 이미지즘적 · 회화적
핵심 정서 첫여름 자연의 생동감 속에서 떠나간 이를 그리워하며 기다림

03 시상 전개

계절 오동꽃의 보랏빛을 불빛처럼 제시하며 이곳의 첫여름 분위기를 연다.

편지 멀리서 온 글자마다 바다의 움직임이 어른거리며 그리움이 확장된다.

감각 시각·청각·촉각이 뒤섞이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여운 멀리 우는 오르간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로 그리움의 여운을 남긴다.

06 표현 기법

감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과거를 회상하고 너를 향한 그리움을 형상화한다. 자연의 빛, 소리, 움직임이 화자의 정서와 연결된다.

말을 건네는 방식

5연에서 **피끄만 이 페스탈로치야, 피꼬리 같은 선생님**이야처럼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그리움을 표현한다.

그리움의 회화적 표현

파랑새, 소곤소곤, 갈매기 같은 종선, 오르간 소리 같은 이미지로 너를 향한 애정과 그리움을 표현한다. 감정을 직접 토로하기보다 장면과 소리로 정서를 그려낸다.

DECODE <보기> 먼저 해독

핵심 관점

정지용의 핵심은 감정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감각적 이미지로 정서를 환기한다는 점이다. 특히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 가는 공감각적 전이와 자연과 화자의 친밀한 교감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보기> 키워드

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전이

산문시

첫여름

편지의 매개

서정적 여운

05 출제 포인트

작가 정지용은 모더니즘 시의 정점을 이룬 시인으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추상적인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정서·태도 화자는 그리움을 직접 고백하기보다 자연 이미지와 소리의 여운으로 드러낸다.

이미지 판단 오동꽃의 색채, 바다의 움직임, 오르간 소리가 계절감과 거리감을 만든다.

표현 기법 시각에서 운동감각·청각으로 이어지는 감각 전이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오답 차단 도시적 소외나 비판 의식보다 자연 서정과 감각적 교감이 중심이다.

07 작품별 핵심 체크 (현대시)

화자 태도

떠나간 이를 향한 그리움을 섬세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드러낸다.

이미지

자연의 빛·소리·움직임이 연결되며 정서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표현 기법

공감각적 전이와 이미지 나열로 감정을 간접화한다.

비교 축

『와사등』이 도시의 고독이라면, 이 작품은 자연 속 그리움이다.

나룻배 이야기

하근찬 · 2027 수능특강 문학

02 전체 줄거리

「나룻배 이야기」는 한국전쟁이 농촌 공동체에 남긴 상처를 강과 나룻배, 늙은 사공 심바우의 결단을 통해 형상화한 전후 농촌소설이다. 마을과 외부에 있는 유일한 통로인 나룻배의 사공 심바우는 아들 용팔과 마을 청년들을 차례로 전쟁터로 떠나보낸다. 지뢰로 인해 다리를 잃은 두철이 돌아오고, 천달이 전사하여 유골로 돌아오자 심바우는 더 이상 청년들을 강 너머로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새로 사람을 데려가려는 강 밖의 인물들 앞에서 그는 배를 강 한복판으로 저어 간다.

갈래·성격 단편소설 · 전후소설 · 농촌소설 · 사실적 · 비판적
핵심 주제 한국전쟁이 농촌 공동체에 가한 폭력과 늙은 사공의 윤리적 저항
핵심 구조 출정 전야 → 두철의 귀환 → 천달의 유골 → 강 밖 인물들의 호출 → 강 한복판으로 배를 저음

03 서사 전개

출정

용팔·천달·두철 등 마을 청년들이 전쟁터로 떠날 준비를 한다.

귀환

두철은 지뢰로 다리를 다친 채 돌아오고, 심바우는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한다.

불안

심바우의 아들 용팔과 다른 청년들의 소식이 끊기며 마을은 전쟁의 공포에 잠긴다.

죽음

천달이 전사하여 유골이 되어 돌아온다는 소식이 마을 사람들은 큰 슬픔을 느낀다.

저항

심바우는 강 건너 사람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배를 강 한복판으로 저어 간다.

DECODE <보기> 먼저 해독

핵심 관점

나룻배와 강은 외부와 마을을 잇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전쟁 폭력이 마을로 침투하는 길이다. 심바우가 강 한복판으로 배를 저어 가는 행위는 무력하지만 단호한 윤리적 저항으로 읽어야 한다.

<보기> 키워드

전후소설

농촌 공동체

심바우

나룻배

강의 경계성

두철의 다리

천달의 유골

윤리적 저항

벳머리 돌림

05 출제 포인트

작가 하근찬은 「수난시대」로 대표되는 전후소설 작가로, 전쟁과 분단이 농촌에 남긴 상처를 사실적으로 그린다.

핵심 갈등 국가의 징집 명령과 농촌 공동체를 지키려는 사공의 양심이 충돌한다.

상징 기능 나룻배는 연결의 매개이자 청년들을 전장으로 보내는 폭력의 통로이다.

인물 의미 두철의 다리 상흔과 천달의 유골은 전쟁이 청년들의 삶을 파괴한 결과이다.

오답 차단 심바우를 단순히 명령을 어기는 인물로 보지 말고 윤리적 저항의 중심으로 읽는다.

04 EBS 수록 위치: 전체 줄거리 중 '천달의 유골 귀환'부터 '배를 강 한복판으로 저어 감'까지

천달이 전사하여 유골이 되어 천달의 아버지 양생원의 품에 돌아오고, 천달의 아내 손녀는 사람들 앞에서 오열한다. [중략] 강 건너 총을 멘 사람과 양복 입은 관리를 본 심바우는 분노를 느낀다. 더 이상 사람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심바우는 그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강 한복판으로 배를 저어 가 버린다. 심바우는 통쾌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느낀다.

1. 출정 전야

청년들은 노래 속에서 다음 날 전쟁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2. 두철 귀환

지뢰로 다리를 다친 두철이 나룻배를 타고 돌아온다.

3. 유골 귀환

전사한 천달이 유골이 되어 양생원의 품에 돌아온다.

4. 강 밖 인물

총을 멘 사람과 양복 입은 관리가 강 건너에서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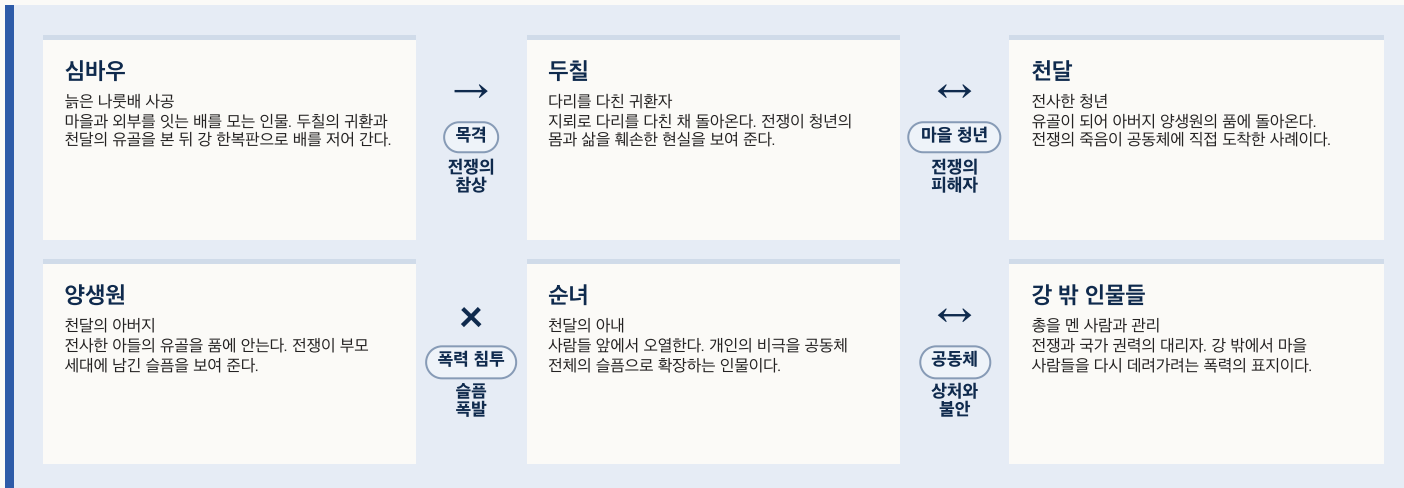
5. 한복판

심바우는 외침을 무시하고 배를 강 한복판으로 저어 간다.

나룻배 이야기

인물·구조 · 심바우 / 두칠 / 천달 / 양생원 / 순녀 / 강 밖 인물들

06 인물 관계도



07 표현 · 구조 포인트

독백적 발화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갈라고"처럼 심바우의 내적 독백으로 분노와 불안을 드러낸다.

초점 화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심바우를 초점화자로 삼아 그의 시선과 감정으로 사건을 서술한다.

공간의 대비

강 안쪽 마을은 삶의 터전, 강 밖 세계는 사람들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전쟁의 공간이다.

복합 정서

심바우는 강 한복판으로 배를 저으며 통쾌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낀다.

08 핵심 구도

이 작품은 강을 사이에 두고 강 안쪽의 마을과 강 밖의 세계를 대비한다. 강 안쪽은 순박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지만, 강 밖의 인물들은 사람들을 데려가 다치거나 죽게 만드는 전쟁의 폭력을 상징한다. 심바우가 외침을 무시하고 강 한복판으로 배를 저어 가는 행위는 전쟁의 비극 속에서 공동체를 지키려는 윤리적 선택이다.

09 작품별 핵심 체크 (현대소설)

구성

출정, 두칠의 귀환, 천달의 유골, 강 밖 인물의 호출, 강 한복판으로 이동의 흐름을 잡는다.

상징

강 안쪽 마을과 강 밖 세계의 대비가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한다.

갈등

강 밖 인물들의 호출과 공동체를 지키려는 심바우의 양심이 충돌한다.

오답 차단

심바우의 행위를 도피가 아니라 전쟁 폭력에 맞선 윤리적 저항으로 본다.